

충남도, 유망 중소기업 28개 업체 지정

- 6년간 정보·기술·금융 지원받게 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

충남도는 도내 28개 중소기업체를 금년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였다고 7월 3일 밝혔다.

이번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28개 업체는 시·군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35개 업체 중 도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첨단기술·특허보유·품질인증·해외수출유망제품 등을 고려, 최종 지정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6년 동안 도·시군·지원기관으로부터 정보·기술·금융 등을 지원받게 돼,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충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시 추가 이차보전 1.0% 우대금리 적용 ▲전시회·박람회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 참가시 우선지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선진기술지도 및 지원 ▲금융관계 지원기관으로 부터의 우대지원 ▲유망 중소기업 표지판 설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도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44개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하여 75개 업체가 지원이 완료됐고, 26개 업체가 지정 취소돼 현재 143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

2008년도 도내 유망중소기업 지정 업체 (28업체)

시·군 명	지정 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생산품목명	종업원	비고
천안시 (11)	1	(주)세림티앤디	김창동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150-30	2000.7.1	자동차부품	12	
	2	(주)스마트에이스	전원섭	천안시 직산읍 신갈리 제4산업단지	2002.12.20	반도체장치	123	수출
	3	서우테크놀로지(주)	박상규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39-1	1990.10.27	반도체금형	19	수출
	4	(주)펜믹스	김용욱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297-5	2004. 4. 2	아모크라	54	수출
	5	(주)동국일렉콘스	김교봉	천안시 백석동 555-31	1998.11.13	계측제어시스템	9	
	6	자경케미칼(주)	이기석	천안시 성거읍 341-2 (산업단지)	1989. 9.10	제지용오염방지제	34	수출
	7	(주)성진하이메크	구영석	천안시 성환읍 우신리 13-1	2002. 8. 1	평판표시장치	77	수출
	8	마노자동차(주)	한봉천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451	2003. 6. 1	컨버전벤	20	
	9	(주)두선	이상택	천안시 입장면 유리 228	2001. 7. 1	자동차부품	110	수출
	10	(주)메티스	박기현	천안시 목천읍 웅원리 134-13	1999. 7.23	LCD설비제어기	5	
	11	덕성산업	김병욱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 128-8	1999. 1.13	지중전선관	12	수출
공주시 (1)	12	(주)한남하이텍	최만목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33-10	1998.4. 20	산업용 양면 아크릴폼 테이프	52	수출
보령시 (1)	13	(주)플리텍	이기준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63-6	2002. 1.17	폴리에틸렌관	13	
아산시 (3)	14	(주)드리미	최예희 (女)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213-3	2004. 2. 9	LCD제어판	32	여성
	15	동서메탈(주)	조경호	아산시 실육동 239-1	2002.11. 1	가스보일러부품	25	

시·군명	지정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자	생산품목명	종업원	비고
	16	(주)코텍지오메트	조규용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446-8	2002. 3.12	블트류 코팅	43	장애인고용
서산시(1)	17	(주)그린	김진학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486	1990. 6.12	꼬치류, 어묵류	99	
논산시(1)	18	(주)한테크	김환섭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85-5	1987. 2.16	안전강화유리 집합안전유리	30	장애인고용
금산군(4)	19	(주)미라이후손관거	장호윤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490-1	2003.10.30	내충격PVC하수관 내충격PVC오수받이	32	
	20	(주)신우기계	구완희	금산군 금성면 대압리 121	2003. 1.30	이륜차부품 (완충장치), 예초기	24	수출
	21	(주)성호이엔지	진은숙 (女)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309-4	2003.12. 8	이동식부탄연소기	26	여성,수출 장애인고용
	22	삼화엠테크(주)	정주석	금산군 복수면 다북리 327	2005. 2. 1	내압방폭 모터	23	수출
연기군	23	(주)더멋진바이오텍	이인영	연기군 남면 월산리 640	2000. 1. 2	베타글루칸, 커피어, 사료첨가제	10	
청양군	24	(주)필택산업	송준호	청양군 은곡면 효제리 979-7	2001. 5.11	악취탈취기 액비살포기	14	
	25	신기산업(주)	김동복 (女)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56401	1985. 5. 5	상토, 유기질비료	14	여성
당진군(3)	26	(주)신화기공	황부희	당진군 송악면 석포리 844	1985. 5. 1	자동제진기, 감용기 등	15	
	27	(주)새한공업	노승학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10-1	1997. 8. 1	자동차 차체부품	30	
	28	(주)토우	박형준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899	1998. 8. 1	집토미장벽돌 집토바닥벽돌	38	

충남도 조직개편관련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 과장급이상 간부 47명 승진·전보인사

충남도는 7월 9일자로 조직개편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과장급 이상에 대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도는 조직안정과 연말 통합인사를 감안하여 인사폭을 최소화하고, 사람보다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단행했으며, 조직의 기능, 전문성,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는 ① 업무수행능력 우수자를 대상으로 발탁승진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동료직원들의 다면평가와 실국장 토론과정을 거쳐 복지정책담당 고영희 사무관을 발탁했으며 앞으로도 도정시책추진 유공자와 업무능력 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제도를 확대시행 할 계획으로 있으며, ② 여성공무원 우대차원에서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이 3급 승진과 함께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정효영 여성정책담당관이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승진하는 등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영애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충남도정사 처음으로 3급 여성국장급 공무원이 탄생하는 의미있는 인사로 충남도내 여성공무원에 대한 잔잔한 자긍심을 던져주고 있다.

그외 인사 주요내용으로는 곽유신 의회사무처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정동기 자치행정국장이 2급 승진과 함께 도의회사무처장으로, 임현용 농림수산국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이성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 농림수산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이필수 감사관은 서산부시장 발령으로 공석이 된 복지환경국장으로, 명주식 의회 전문위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으로, 유제곤 정보화담당관이 꽃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으로, 농업기술원장에 강주석 기술보급국장이 각각 승진, 발령되었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로는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이 서산부시장으로, 서덕철 태안부군수가 감사관으로, 서범석 공보관이 태안부군수로, 홍영식 세무회계과장이 홍성부군수로 전보되었으며, 한근철 홍성부군수는 道의회 전문위원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서기관 승진에는 이상준 도의사회담당, 김종화 인사담당, 홍민표 유비쿼터스담당, 이두훈 예산총괄담당, 유득원 경제자유구역청 준비단장, 나창호 도청이전본부 행정도시지원담당, 정효영 여성정책담당, 고영희 복지정책담당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기술서기관 승진에는 박국진 도로계획담당, 이강우 연안관리담당, 한동희 식량작물담당이 각각 승진했다.

한편 道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전인 이달 중순경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선 4기 후반기 안정적인 도정운영에 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22일, 당진 예술의 전당에서 주요인사·주민 등 500명 모여 개청식 가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성배)은 7월 22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보, 강태봉 충남도의회위원장,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이명수·김낙성·변웅전·원유철(평택)·김성희(화성) 국회의원, 강희복 아산시장, 유상곤 서산시장, 민중기 당진군수, 송명호 평택시장, 최영근 화성시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개청식에 앞서 당진읍 수청리 소재 원당 드림타워 건물에 마련된 구역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개청식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식전행사로 당진군립합창단의 '축가합창', 그룹 비트서클의

전자드럼과 전자북으로 연주하는 '타악 퍼포먼스' 축하공연에 이어, 공식행사로 김성배 청장의 경과보고, 이윤호 장관의 축사, 이완구·김문수 도지사 인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그룹 시사이의 '잉카문명 전통 안데스' 음악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8월 24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방침에 따라 같은 해 10월 31일 재정경제부 지정 신청에 이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설명하면서 “이후 약 4개월간의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5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아 오늘 비로소 개청식을 갖게 됐다”라며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이완구 도지사는 인사를 통해 “오늘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의 신 성장엔진이 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연 것을 200만 충청도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하고 “지식창조형 경제특구건설을 통해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기지가자 동북아시아 물류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 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발족한 구역청은 1청장, 2본부, 6과의 기구로 출범, 충남도 64명, 경기도 65명 등 모두 129명이 근무하며, 이완구 지사와 김문수 지사는 지난 1월 9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충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지역에 세우고, 초대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총 5개 지구 5,505만 평방미터의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

수용인구는 9만6천 세대, 23만 명 수준이며, 사업비는 총7조4천여억 원이 소요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구역청은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4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5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함께 28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 산하 출연기관 경영실적 눈에 띄게 개선

-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차 17.44점으로 크게 감소 경영실적 상향 평준화

충청남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1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 평가과정에 피 평가기관의 참여확대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 고객지향 경영유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평가는 관리부문, 경영부문, 고객만족도 부문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부문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정책개발원이 상위그룹에 랭크되었고 ▶관리부문은 충남발전, 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가 ▶경영부문은 역사문화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객만족도 부문은 신용보증재단,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출연기관에서 기관장의 경영이념 및 가치가 기관의 비전과 연계되어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우선 순위 조정, 또는 전략사업 개발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년도 경영평가와 비교해 볼 때 전년 평가에서는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과의 격차가 30.1점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12.66점으로 크게 줄어 상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체제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년도 경영평가와 차별화하였다고 한다. 첫번째로 평가의 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의 기관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처음 도입했

다고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워크숍 개최, 출연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고객만족도 반영 비율 조정 등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수요자 중심의 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충남, 공공디자인으로 自然을 품는다

- 도정 전반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로

충남도가 도정 전반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공사업에는 미리 공공디자인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가미된 『문화충남』을 구현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심에 설치되는 공원·교량·도서관 등의 公共空間과 벤치·공중화장실 등 公共施設物 및 교통표지판·광고판 등 공공매체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관광자원개발 등의 공공사업에는 전문가의 공공디자인 자문을 받도록 하여 아름답고 매력적 정감이 넘치며 다시 찾고 싶어지는 도시의 명소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도 국정과제로 Global Korea 시책의 일환으로 『디자인 코리아 2020』을 펼치고 있으며 국회에도 공공디자인 관련법안 발의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제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공공 디자인 전담부서를 편제하고 대학들도 앞다퉀 관련학과를 증설하는 등 공공 및 학계, 민간 모든 분야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충남도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건축 및 도시개발분야와 한 곳에 묶어 편제하면서 공공디자인업무를 담당할 민간전문가 선발 및 관계공무원 정예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공공디자인을 선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디자인 波紋효과(Rippling Effect)를 노릴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였다.

충남도가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동안 문화적 가치가 배제된 채 산발적이거나 무계획적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되거나 도시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경관조성과 각종 문화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도시재생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거시적·미시적 유형별 가이드라인 설정 및 가로시설물 시스템화 등을 통한 통합 디자인(Total Design) ▲불필요한 공간·시설물 제거 및 인간친화적 거리경관을 조성하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Human Basic Design) ▲주민 자율협정제를 통한 참여형·체험형 디자인을 위한 소통의 디자인(Community Design) ▲자연과 인간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 순환가능한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 ▲백제문화의 숨결이 반영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역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Regional Identity Design) 등 5개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공공주도형 지구단위 마스터플랜(Block Unit Plan)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수립된 공공디자인 추진계획은 도와 시군 및 전문가와 주민이 중앙부처·언론·유관기관·학계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도에서는 정책개발 및 사업구상과 공모사업 실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원론적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추진 및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운영 등 민간을 선도할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대학교수 연구소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체는 디자인 컨설팅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은 주민협정제를 통한 사업추진과 디자인 공모 참여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디자인자문을 받게 될 공공사업으로는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연면적 5,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건축 ▲건당 50억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 ▲건당 10억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와 광고물, 가로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업 등이 디자인자문을 받게 되며 기타 도에서 추진하는 생태공원조성사업, 테마형 관광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등 40여개의 크고 작은 시책도 디자인자문을 받게 된다.

충남도, 2008계룡군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14일부터 19일까지, 태국왕립군악대 등 31팀 1,500명 참가

충남도는 9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를 비롯한 강태봉 도의회 의장, 최홍목 계룡시장, 김학영 계룡시 의회의장, 지역출신 도의원, 군관계자,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장, 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군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전국 13개 시·도 재향군인회장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축제는 「화합과 평화의 메아리, 군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군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표현하여 군을 통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행사기간(3일 → 6일) ▲ 공연장 규모(2,800석 → 4,000석) ▲ 프로그램 참여인원(1,000명 → 1,500명) ▲ 해외참가 군악대(1개국 → 미8군과 태국왕립군악대 등 2개국) ▲ 참가 프로그램 수(27개 종목 → 53개) 등이다.

특히, 군악공연은 육·해·공군과 태국왕립군악대, 미8군취타대 등 국내외 6개 군악대가 참가하게 되며 다양한 형태의 합동공연을 통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웅장함을 연출하게 된다.

「하나됨의 울림」이라는 합동공연의 경우 군악대와 의장대, 성악병사, 민간합창단 등 모두 442명이 출연하며 객석에도 연주자를 배치하여 관람객과 출연진이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공연모습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0여명의 육·해·공군 군악대 합동공연과 성악병사, 시군 합창단의 전쟁영화 음악과 오페라 아이다, 개선행진곡 등을 연주하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올해 처음 과거부터 현재 군의 발전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특히, TV나 영화에서 사용했던 삼국, 고려, 조선시대 전통군복의 실물전시와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 UN참전국의 당시

군복과 소품을 확보하여 전시하고 관람객이 직접 입어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체험기회도 마련한다.

행사기간 공연장 주출입구에 궁궐수문 세트를 제작하고 전통복장을 착용한 장군 및 병졸 30명이 출연하는 전통수문장 근무교대식이 하루 4회 실시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퍼레이드로 행사 첫날인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엄사리 시가지 1.5km 구간에서 군악대, 의장대, 학생밴드 등 15개팀 500명이 현장에서 즉흥 연주와 동작 등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시민과 관람객도 깃발과 캐릭터를 손에 들고 참가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룡군문화축제 기간에는 육군본부가 주최하는 지상군페스티벌 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장병들과 똑같은 식사를 맛볼 수 있는 병영식사 체험, 화상면회관, 병영생활관 등 육군의 발전상을 한 곳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2008계룡군문화축제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된다.